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에게 전하여
행복한 가정 · 건강한 교회 · 깨끗한 도시를 만드는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성시

창간 1998년 9월 15일
2018.5. vol. 225

춘천성시화운동본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춘천교계 소식을 빠르고 생생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facebook.com/holycc1972

기사내용 미리보기

01 성시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02 특집1 6.13 지방선거
04 칼럼 목사님과 차 한잔
05 특집2 호국 보훈의 달
06 선교 인도 비하르 선교 소식
08 영화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 한걸음
09 통일 Second Chance
10 건강이야기 봄철 미세먼지의 습격
11 기획 한서 농촌계몽 시작 100주년
12 잠깐 라마단 30일 기도
13 교계소식
14 춘천교회소식
16 후원자 명단

후원참여하기
1달에 1번,
커피 한잔의
후원이면
충분합니다.

신협 131-005-937566
농협 172242-51-085114
예금주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광고주를
모십니다
문의 033.256.1260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발행인 이사장 박인관
본부장 조영순
춘천기독교연합회장 신재원
발행처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도 춘천시 금강로 120 302호
033-256-1260 033-257-1260
holycc1972@daum.net

예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23편)

조윤서 작 | 제작기간 : 2017~2018 년 | 규격 : 444cm x 168cm | 소재 : oil on canvas | 설치장소 : 창대교회 1층 로비

성시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126편을 통해 춘천성시화의 비전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126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서 조국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다가 나라를 회복한 것은 마치 꿈을 꾸는 것과 같이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큰일을 행하셨기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고 고백합니다. 나라를 잃고 흩어져서 노예생활을 하던 백성들이 다시 나라를 되찾아 세운 다는 것은 사람의 지혜나 능력을 벗어나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초월적인 역사하심 때문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되는 일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마치 꿈을 꾸듯이 이루어지고, 꿈만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시126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해 말씀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을 갖고 미력하나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사람의 능력은 보잘 것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비하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저 눈물을 흘리면서 씨앗을 뿌리는 작은 일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수고가 모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하심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수고와 헌신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고 노래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과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수고와 헌신이 상충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펼쳐질 때에 반드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십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는 잘 살아보세! 라는 가치관이 대세를 이룰 때입니다. 그런데 척박한 강원도 춘천의 작은 도시에서 잘 사는 것보다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구별되게 살아보자는 기치를 들고 성시화 운동을 시작했다는 것은 매우 아름답고 특별한 일입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도시에 대한 비전은 춘천에 거주하는 신자라면 누구나 가질만한 부르심의 한 소망이 되는 비전입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이 올 해로 46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약한 부분이 많지만 누군가는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 결과로 춘천은 강원도의 여타 도시에 비해 복음화율이 높은 도시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도시에 사람들이 생각지 못할 새 일을 계속해서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며 오늘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이 글은 작은 일일지라도 이 도시에 대한 소망을 품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약속하신대로 이 도시에서 기쁨의 단을 거두는 보람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춘천을 위한 만인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돈 천원의 헌금이라도 이 도시를 위해 기쁘게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헌신과 수고가 이 도시에서 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글. 이병철목사(주향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본부장)





특집 -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6월13일)

춘천시장 후보자의 정책제안과 질의에 대한 답변



더불어민주당 이재수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최동용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변지량 시장 후보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❶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민관 협력 방안에 대하여

1970년대 100만 명 출생아가 2017년 말 현재 35만7700명으로 감소하여 OECD 국가 중 출산율 최저 국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2032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급격한 출산율의 저하로 4년이 빠른 2028년부터 인구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 교계와 함께 가임여성 출산 및 양육 상담, 보육, 다자녀 부부 축하잔치 등을 협력하실 의향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님이 갖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은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수천 년의 역사를 이어온 춘천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춘천의 역사는 두드러진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인구 규모가 당시 기준으로 엄청난 때문인데요. 중도 일대에서 발견되는 고고학적 증거들이 증언하고 있듯이 수천 년 전 춘천의 인구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900기의 집터에서 보듯이 당시 분명 춘천은 나라였습니다. 한반도의 중심성이 유지가 된 것이겠죠. 향후 통일 이후 동북아시대의 중심도시를 지향하는 춘천을 위해 춘천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인구 증가 지역이 될 것인데요. 그것을 제대로 준비하는 행정체제도 필요합니다. 출산 장려 정책 위원회의 설치도 그런 차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지속 가능한 출산장려를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산이 감소하는 이유는 인구감소, 결혼 적령기의 변화, 맞벌이 증가, 양육환경, 사회의식의 변화 등 여러 요인이 존재합니다. 각계각층의 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효율적인 논의 단위를 구성하여 대안을 만들어나가겠습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지난 4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보육선도도시를 주창하며, 출산장려금 지급, 임신부터 육아,교육까지의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장난감어린이도서관 신축, 키즈파크 추진 등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춘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민관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귀 단체에서 출산장려위원회를 함께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
보육과 육아는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니며, "공공재"로서의 인식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도로나 환경을 위해 세금을 투자하는 것처럼, 우리의 아이들을 위해 공공의 투자가 이뤄져야 합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목표 : 춘천의 맞춤형 육아지원 시스템을 구축
실행계획 :
- 육아 종합지원센터 운영: 임신, 출산, 육아, 교육, 일자리, 유아, 아동 돌봄 관련System 가동
- 병, 의원, 보건소 등을 이용 시 산전, 산후 조리 교육 및 의료비 혜택
- 보육비, 교육비 절감 및 지원
- 민간보육시설의 활성화 지원: 농촌지역 공동아동돌봄센터 사업지원 등
- 민관의 협력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유, 초등 방과 후 프로그램(음악, 미술, 1인1기 보급)

※ 주민의 의견을 적극 경청, 수렴하는 열린 행정 추구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❷ 근대 문화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현재 한국사회의 문화에는 전통문화와 민족문화만이 있는 것이 아니고, 19세기말부터 등장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근대문화도 있습니다. 충남 서천군 마량진에는 '한국 최초 성경전래지 기념관', 충남 보령군 고대도에는 독일인 선교사 귀츨라프 박사가 씨감자, 포도즙 담그는 법, 주기도문 전수 등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와 기념관등이 보존되어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후보자님은 춘천시에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근대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을 하는 일을 정책화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 저는 일찍이 춘천학을 주창한 바 있습니다. 지역학은 춘천의 인문, 지리, 역사, 교육, 문화, 산업 등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그 속에 알맹이를 건져내는 일이라 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곧 춘천 학은 춘천의 자부심, 자긍심을 일깨우는 일입니다.
- 이일을 위해 지역 대학에 춘천학 교양강좌를 개설하고 이 강좌를 개설한 학교에는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해 지역학의 연구를 깊이 있게 만들 생각입니다.
- 춘천의 다양한 연구 인력들이 함께 할 것이고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가 기대됩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춘천시에도 기독교의 근대문화유산으로 선정 가능한 교회가 있지만, 안전도 검사에서 문제가 있고, 구도심에 있어서 주차장도 불편하여 여러 목사님들의 제안이 있음에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기독교가 대한민국에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왔고, 봉사나 헌신을 통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의 좋은 예를 보여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독교와 관련된 문화유산이 있다면 적극 발굴하여 보존과 개발을 병행하며 모든 이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역사, 문화, 예술의 창조적 도시, 춘천
- 고대-근,현대에 이르는 일련의 역사적 가치 적극 발굴
- 레고랜드 지역의 선사 유적 자원의 발굴 및 보전
- 신지적 역할을 담당한 근대 문화유산의 발굴, 보존과 복원사업을 통한 춘천의 역사적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 콘텐츠 개발
- 근대문화발전특별위원회 구성 : 근대의 역경과 고난, 그리고, 반성과 회개, 회복과 부흥으로 연계

관광, 교육자원화
- 각급 학교의 자율학습의 날 활용 탐방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사랑과 감사의 표본인 성지(聖地)로서의 자긍심 회복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❸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의 문제 대처에 대하여

반사회적 사이비 집단에 의한 포교 및 포섭으로 청소년 탈선, 가정파괴 등 폐해가 나타나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이비 집단 문제에 대해 국내외 피해사례 및 주민의견 청취 등 효율적으로 대처(건축 인 · 허가 · 불허)하여야 시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후보님은 사이비집단의 폐해를 어떻게 방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 지방정부가 종교에 대응한 할 수 있는 일인지 제한적임을 이해해야 할 듯합니다.
· 그러나 지역사회 공동체 질서를 해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협한다면 적극 개입하고 시민의 보호를 우선하겠습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지난 원주시청의 '꽥스테리'를 보면서 사이비 집단의 위험성을 느낀 바 있습니다. 춘천시에도 그동안 여러 사례들이 있었으나 슬기롭게 극복했고, 앞으로도 대중의 정신적 안정을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인허가를 할 때는 환경영향에 대한 지표를 강화하여 사이비 집단의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 피해 사례의 D/B 시스템 구축 운영 : 신고 접수 시 철저조사
※정통교단 중심의 선별위원회 구성 : 위원회의 결의 사항 철저하게 실행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❹ 자살예방 및 낙태 반대 등 생명존중 정책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하루 평균 37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년에 40만 건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살과 낙태는 생명 경시 풍토에서 오는 것이며 특히 낙태 허용과 합법화는 정부의 출산장려정책에도 역행합니다. 자살 예방과 낙태 예방에 대한 후보자님은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종교계와 협력하여 생명존중 정책과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에 대하여는 어떤 입장입니까?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 생명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춘천을 춘천시민들과 또 춘천의 기독교인들이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그동안 "배려가 없으면 우려가 온다"라는 말을 하면서 소외된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봉사단, 복지이통장제도, 춘1000인 나눔캠페인 등을 도입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나눔"이 있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문화,예술,체육 등 벅찬 일상을 떠나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하여 어려운 분들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의 노력만으로 부족한 정신적 영역은 종교계에서 도와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며, 정책과 캠페인을 공조하는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돌봄이 있는 도시 춘천
※안전조례제정
※자살실태조사 결과(자살 사망자 유형 분류, 공통 및 추가적 위험요인 구분, 연령대별 위험요인) 적극적으로 분석, 반영하는 정책 추진→상담, 치유, 지원센타(복지회관 내) 건립 운영
※낙태 실태조사 결과 적극반영-상담, 지원책마련→체크, 지원시스템 가동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❺ 중독 예방과 치료에 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나라 인구 중 333만 명이 마약, 도박, 알콜, 인터넷게임 등에 중독된 환자입니다. 우리나라 국가 예산 400조원인데, 국민이 소비하는 중독비용이 109조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중독 예방과 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는데, 후보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민관이 협력하여 종교계와 함께 중독예방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관련 기관과 함께 이와 관련한 다각적인 조사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알맞은 대안을 사회 전 분야의 각계각층과 시의회와 함께 풀어나가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중독의 예방과 치료는 함께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독예방센터를 함께 운영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 위에서 언급한 자살, 건강, 혼인기피, 저출산 등과도 직, 간접적 연관이 있는 사안으로 예방 및 치유에 대한 조례제정과 더불어 관련기구도 필요합니다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❻ 사랑이 넘치는 청정 시 · 군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최근 강력사건 및 민생 침해사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범죄 없는 도시, 안심하고 자녀 학교 보낼 수 있는 도시, 스쿨존 내 어린이 · 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 독거노인 섬김 활동 지원 등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청정 광역시도 · 시 · 군 · 구 만들기 조례 제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한 사회의 구성원 간의 신뢰와 사랑은 지역 발전의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시의회와 함께 조례 제정에 대한 숙의를 깊이 있게 해 나가겠습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현재 우리시에서 안전한 학교 가는 길 조성, 스쿨존 내 어린이와 청소년 유해업소 금지, 소년소녀 가장과 독거노인 지원 등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넘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좋은 사례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사랑과 봉사, 안전한 도시, 춘천
· 춘천을 안심도시, 정의로운 도시, 나눔과 섬김의 도시로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안전조례 제정
· 안전체험시설, 교육관 건립
· 우범지역의 방범체계 정비, 보완: CCTV 추가 설치
· 실버존, 스쿨존 추가조사 및 정비
·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 허그 캠페인 전개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❼ 맑고 깨끗한 환경을 위하여

미세먼지와 황사 등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 치명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친환경 정책은 무엇입니까?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지속가능한 환경적 자립도시를 구축할 것입니다.
에너지 자립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청정에너지 사용률을 높여 나가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도로의 확대를 통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겠습니다. 공원과 생태 숲, 강과 물을 이용한 오염도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친화적 도시를 만들 것이며, 쓰레기 제로 정책을 만들고 유해물질 배출 등을 감소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를 강화하고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입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올해 우리 시에서는 300여 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공기 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전기자동차 지원도 확대하고, 노후 경유차 지원도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후 보일러 교체사업,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대, 대중교통 이용 지원, 태양광 발전 확대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할 계획이며,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을 위한 물청소를 확대하겠습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환경 친화적 도시 춘천

- 전기차 도입 및 운영
- 차 없는 거리 적극 확대
- 대기 및 수질 토양오염 요인의 근본적 차단-쓰레기 문제 강력 해결
- 매립장 부지 철저한 사전 준비(부지선정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협조 완결)
- 수질자원의 적극보호: 상수원보호, 폐수(음식점 등) 관리

주요 정책 제안과 질의 ❽ 동성애와 동성혼을 보호·조장하는 광역시도 시·군·구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제정 반대 또는 폐지에 대하여

'성적지향(동성애 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여 동성애를 보호·조장하는 학생인권조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인권조례는 폐지하여야 하고 새로 제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과 교계의 입장인데 후보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참고로, 충청남도 도의회는 지난 2월 2일 '성적지향'이 포함된 '충청남도 도민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였다.

이재수 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지역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에 대한 존중의 기조를 유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의견을 충분한 숙의를 통해 깊게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최동용 시장 후보 (자유한국당)

종교를 떠나 수천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금기시 되어 왔던 동성애를 합법화 하고, 자유라는 논리를 통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하며, 제가 시장이 된다면 끝까지 이러한 생각을 토대로 모든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변지량 시장 후보 (바른미래당)

소통과 협력을 통한 정의의 도시, 춘천

- 조례 제정 과정 중 주민 소통, 불합리한 인권조례 등에 대한 주민 소통과 협력 증진
- 성 정체성 교육 강화: 각급 학교, 기타 사회교육 시 교육 강화, 주민 대상 캠페인 지속적인 전개

세계성시화운동본부에서 제공한 정책제안과 질의문을 활용하였습니다. - 편집부 -

칼럼



목사님과 차 한잔

글. 구성덕 목사(2군단 군목)

'목사님과 차 한 잔'. 군단 예하 부대에서 근무하는 목사님들이 진행하는 특별한 행사의 이름입니다. 교회에 참석한 신우들이 사연을 기록해서 제출을 하면 그 주간 선정된 신우에게 목사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가서 맛있는 커피를 사주면서 목사님과의 진솔한 대화가 이어집니다. 행사를 진행하는 목사님들의 말에 의하면 신우들의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잠시 부대를 벗어나는 그 자체가 기분 전환이겠지요. 군복을 입고 민간 카페에서 마시는 커피는 무조건 맛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무엇보다 자신만을 위해 준비된 시간이라는 사실에 신우들은 특별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행사를 진행하는 목사님들로부터 또 다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과 차 한 잔을 진행하면서 그동안 잊고 있었던, 자칫 잃어버릴 수 있었던 한 사람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기회였다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 영혼의 귀중함이죠.

2002년 중위로 임관하여 시작한 군사역의 초임 시절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매주 토요일 전입 신병을 한 명씩 면담했던 시간들, GOP 철책선 앞에서 매서운 바람을 맞으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내고자 견디는 병사들을 찾아가 커피 한 잔과 초코파이를 주면서 기도를 해 주던 시간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목회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무뎌지는 것 같습니다. 계급이 높아지면서 사역하는 부대의 규모가 커지면서 한 영혼 보다 많은 인원들에게 마음이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 예배 사역, 부대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교육, 무엇보다 군 선교의 꽃이라 불리는 신교대 진중세례 사역, 물론 그 모든 사역의 중심에 한 영혼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일을 하다 보면 많은 행사를 하다 보면 한 사람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눈길이 가게 됩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하면서 숫자에 민감해지기도 합니다. 물론 많은 청년들이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은 보람된 일입니다. 그러나 많아지면 한 사람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고, 만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3번의 신교대 사역을 하면서 보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만났던 신우들이 과연 어떤 확신과 고백을 했는지? 어떤 두려움과 고민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디서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는지 솔직히 궁금합니다. 그러나 막상 다른 일들이 시작되면 그런 고민들을 잠시 접어두게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100마리 양들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어버리자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나서는 목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 한 영혼, 한 사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마18:14). 하나님의 마음은 백 명도 한 명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99명이 있으면 한 사람에 대해서는 가볍게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쉽게 지나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모든 이들을 다 돌볼 수 있어? 애써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찾으면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1004 군인 교회, 군 복음화를 통한 민족과 세계의 복음화, 비전 2020운동을 부인할 마음은 없습니다. 청년 선교의 마지막 보루가 군대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한 명을 돌보며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군복을 입고 군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사역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영혼을 살피는 진짜 목자를 찾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님과 차 한 어떠십니까?

청년 복음화의 황금 어장인 군 사역 전초기지,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사역을 소개합니다.

비전 2020 실천운동 선포 20주년 더 전도. 더 세례. 더 양육. 더 결연. 더 후원
"60만 국군 장병들을 하나님께!"



▲ 2군단 기독교 군종병 수련회



▲ 사랑의 '독서카페' 49호점 개관식



▲ 육군훈련소 진중 침례식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MEAK)가 비전2020실천운동을 선포한 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다. MEAK 산하기관인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군선교 강원지회)는 설립 18주년을 맞는다. 군선교 강원지회에서는 2018년도에도 MEAK가 목표로 진행 중인 전도-세례/양육-결연으로 이어지는 선교적 선순환을 통한 실제적인 복음의 열매를 거두기 위해 매진하고 있다.

현재 군선교 강원지회는 이사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와 지회장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를 필두로 춘천, 화천 지역 교회 내 30여 분의 목회자들이 이사로 구성되어 군선교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

군선교 강원지회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군부대들은 춘천, 화천에 자리한 2군단과 예하 사단인 7사단, 15사단, 27사단 내의 교회들로 총 75개의 교회가 있다. 하지만 현역 군목들이 12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전체 교회들을 다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군선교 사역에 지원한 후 MEAK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42명의 '민간 목회자'들이 "군선교 사역자"로 위촉을 받아서 나머지 부대교회들을 맡아서 섬겨오고 있다. 부대 사정에 따라 1인 1교회로 섬기시는 분도 있고, 1인 2~3교회를 섬기시는 "민간 군선교 사역자"들이 있으며, 군선교 강원지회는 이런 군선교 사역자들과 2군단 교회들의 선교사역을 지원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강원지회가 매해 지속적으로 섬기고 있는 군부대지원 군선교 행사로는 "국군 장병들과 함께 부활절 계란 나누기"와 "사랑의 온차 전달"이 대표적이다. 부활절 계란 나누기 행사는 매해 부활주일 직전 금요일에 행해지고 있다. 매해 1~2만여 개의 계란을 부대 교회들에 전달해주고 있다. 올해에는 350판(10,500개)의 맥반석 구운 계란을 준비해 2군단과 각 사단 교회들에 전달하였다. 이 전달 행사는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 시무)에서 2018년 3월 30일 오전 11시에 있었으며, 13개 교회와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이 되었다.

"사랑의 온차 전달" 행사 또한 매해 성탄절 전 주 금요일에 행해지고 있으며, 해마다 40~60박스를 준비해 전달해 오고 있다. 지난해 2017년 12월 22일에는 신성감리교회에서 오전에 동일하게 전달식이 진행되었는데, 8개의 교회와 기관의 후원과 고신총회(7사단 후원)와 기하성총회(15사단 후원)의 지원이 더해져 121박스를 전달하는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해마다 후원 교회들이 더 줄어들고 있는데, 군선교에 대한 교회들의 관심이 감소되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걱정이 든다는 것이다.

나아가 군선교 강원지회는 매해 연무대교회 및 각 사단 교회들을 방문해 진중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연무대교회의 경우 진중세례식이 500회차를 넘어 600회차를 향하고 있다. 매 회마다 2~3천 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있다. 지난해는 이사장 이수형 목사와 민간 군선교사역자들이 한 회에 참여하여 세례식을 거행했다. 뿐만 아니라 2군단 예하 3개 사단 교회들에서도 지난해는 총 31회 31개 교회 및 기관들이 장병 4,885명에게 진중 세례를 베풀었다. 춘천지역 교회들만 아니라 각 교단의 대표 교회들이 참여하여 지원 및 세례식에 직접 참여하였다. 이와 같이 해마다 시행되고 있는 이 진중세례식은, 동참을 원하는 교회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이 행사에 참여해보신 목회자분들은 수많은 장병들을 보면서 청년들을 향한 선교적 열정과 영혼 사랑이 뜨겁게 타오르는 것을 느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많은 교회들이 이 선교의 현장에 동참하여 그 열기를 느껴보라고 권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군선교 강원지회 소속 민간 군선교사역자들은 2군단과 예하 사단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전도 행사와 문화행사와 세미나, 강연 등도 진행하고 있다. 한 예로 군선교 강원지회 감사이신 최남식 목사(화천명성교회 시무)의 경우 짜장면 선교회와 협력하여 2군단 예하 사단들을 돌면서 짜장면을 나누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 올해 5월 14~17일에도 이 사역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지난해는 한 부대의 군사령관과 협력하여 힐링캠프장을 만들었으며, 현재 사단별로 "힐링캠프"와 같은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시무)의 후원을 통한 군부대 문화사역으로 춘천 CGV, 화천 토마토시네마 한 관을 대관하여 장병들에게 "예수는 역사다"와 같은 기독교 영화 등을 보여주어 복음 전도의 접촉점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매해 "2군단 연합 찬양제"를 개최하고 있고, "종교 안보교육"과 "기독교 군종병 수련회"를 섬기고 있다. 그리고 "춘천성령포럼"과 같은 행사를 열어 목회자들의 신학적 필요를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선교적 노력들이 각 교회별로 진행되고 있다. 군선교에 관심이 있거나 알고 싶어 하는 목회자들은 군부대 강연이나 세미나 등을 신청하면 언제든지 참여 가능하다. 이런 행사들은 선교의 첫 발을 떼는데 매우 쉽고 유익한 접근 방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MEAK의 올해 목표 중 하나는 군부대 교회와 지역 교회와의 자매결연을 통한 군선교 활성화이다. 군선교 강원지회는 이미 지난해부터 2군단 예하 부대 교회들과 춘천, 화천 지역 교회들과의 자매결연을 시도하여 진행 중에 있다. 자매결연의 목적은 경제적 후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교회들이 군부대 교회들과 교류를 통해 군선교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는 것에 있다. 그런데 지역 교회들이 이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적 후원 개념으로 이해하여 스스로 부담감을 느끼고 있어 자매결연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설득 및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군선교 강원지회는 이런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 60만 장병들을, 특히 춘천, 화천 지역 내의 군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과 2군단 지역 부대 교회들을 섬겨오고 있다. 이러한 군선교 사역을 위해 지역 교회들의 동참과 후원을 요청되고 있다. 현재 춘천, 화천 지역 내 300~400여 교회 중에 실제적으로 군선교 사역에 동참하거나 협력하는 교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기 후원교회는 7교회가 전부이고, 여기에 주요 행사 때마다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을 합하면 총 15개 교회 정도가 이에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기독교 세력인 무신론과 타락한 시대정신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어져 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에, 이 땅의 청년 복음화를 위해 60만 장병들이 모여 있는 이 황금 어장을 위해 함께 헌신하여 섬길 교회들의 동참이 시급한 시점이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6장 8절)

글: 조남원 목사(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사무국장)

선교



"자생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인도 비하르 선교소식

*인도 비하르에서 사역하시는 김ㅇㅇ, 이ㅇㅇ 선교사 부부와 인도 목회자인 순일 목사(친베리아 교회), 디네시 목사(디그라교회), 우메시 목사(벨라 교회)가 춘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춘천 방문 일정에는 광염교회, 효자교회, 은혜교회를 비롯한 CCF 교회와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강원CBS, 남부복지관등 기관이 있었습니다. 인도 비하르 지역에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까지의 선교 역사를 김 선교사님 부부의 현장 사역 소개와 동행하신 인도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두 분 선교사님의 본인 소개와 인도 사역을 소개해주세요.

우리는 각각 싱글인 20세에 헌신하고, 26세에 예수전도단(YWAM)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홍천 DTS에서 7년간 사역을 했습니다. 선교사로 준비하며 우리가 기도하던 곳은 아프리카였습니다. 2002년에 춘천에 와서 YWAM 해외 개척을 돕는 사역을 3년간 했습니다. 그 당시 광염교회를 출석했는데, 광염교회에서는 2003년부터 인도 친베리야 마을 문맹퇴치학교를 후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인도를 비전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GMP(해외개척선교회)에서 선교훈련을 받고 2006년도에 인도 비하르로 파송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이영길 선교사님과 한 팀으로 사역했습니다. 2013년부터는 친베리야 마을로 분리 독립해서 현재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함께 오신 세 분의 목사님은 이영길 선교사님의 결실입니다. 이영길 선교사님이 심었고, 우리는 물을 주고, 하나님께서 키우셨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처음 그곳에 갔을 때에는 전기나 물 공급 시설이 없었고, 거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2년 살다 보니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하루에 15시간 들어옵니다. 농장과 학교에서 20분 떨어진 곳에 집을 짓고, 전기 물 공급 시설을 만들어 살고 있습니다.

친베리야 마을에는 800만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은 우리 가정만 있습니다. 친베리야 마을에서 미션스쿨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광염교회와 CCF의 후원으로 문맹퇴치학교 끝내고, 미션스쿨을 만든 것입니다. 미션스쿨은 착공 1년 반 만인 2007년 11월에 완공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지어졌고, 사역들이 확장되었고, 교회도 분리 개척되었습니다. 현재 사역은 교회 개척과 학교 사역, 신학교, 농장 사역, 망고 나무 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비즈니스 회사를 세웠습니다. 이 회사로 지역 일자리 창출과 농법 가르치는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동행하신 세 분의 인도 목사님의 간증과 현지 사역을 소개해주세요.

(예배 중 간증하셨던 내용을 싣습니다.)

· 순일 목사 (친베리아 교회)

저는 2003년에 한국 선교사님(이영길 선교사)을 통해 복음을 들었습니다. 마을에 복음이 전해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믿음을 가질 때 가족이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놓치지 않았을 때, 목사님이 성경연구학교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결혼을 해서 딸과 아내를 두고 가야 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성경공부 하러 도시로 갔습니다. 성경공부 과정을 마친 후, 그곳 목사님이 기도해주셨고, 목회자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을에서 사역을 시작했고, 복음이 전파되며 믿는 자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핍박하기 시작했고 사역이 쉽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회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에는 힌두신도 같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한 쪽에서는 힌두신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 총 담당자가 누구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 발목을 자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교인들에게 듣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가는데 그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음으로 기도하며 갔습니다. 눈을 마주쳤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인간이 나에게 어찌하랴는 마음이 들었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숨어 있던 성도들이 용감하게 가는 나를 보고 와서 함께 예배드렸습니다. 그 사건 이후 교회가 도리어 부흥했습니다. 성도들이 많아지니까 마을회관이 작아서 예배를 드리기 힘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춘천교회의 기도와 헌신으로 미션스쿨과 교회당이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2007년). 재정과 질병으로 인한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결단하며 기도하고 나아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부흥을 주셨습니다. 현재는 7개의 가정교회가 분리 개척되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역하



▲ 어린이 성경 집중 세미나



▲ 신학교 수업



▲ 어린이 성경 축제

며 갈등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보다 귀한 일은 없다고 도전해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김선교사님 부부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인도에서 주의 복음이 번창하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교회를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주변지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인도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낮은 사람으로 쳐다봅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한국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저희들도 기도하겠습니다.

· 디네시 목사 (디그라 교회)

저도 동일하게 힌두가족에게서 태어났기에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상숭배하며 그 신에게 절하던 사람입니다. 한국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마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예수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더 인상 깊고 마음에 와닿은 것은 믿는 자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헌신하는 모습과 행동을 보면서 감명을 받았습니다.

저는 캘커타에서 구두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캘커타 공장에서 예배인도자로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에서는 사역하는 분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삶을 살고 있지만, 어둠 가운데 살고 사람들이 많은데,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고 생각하다가 나도 하나님 사역을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7남매 중의 가장이었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 기도했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김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나눌 때, "디네시 형제님, 당신이 이 세상에 언제까지 살 수 있을 거 같습니까, 당신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쳤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제목을 나누었고, 기도했습니다. 얼마 후 사역하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그때 성경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선택했더니 배울 기회도 허락하셨습니다. 7남매 중 5남매가 다 믿게 되었고, 처가댁이 모두 믿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메시 목사님은 바로 밑 동생입니다. 베드로 안드레같이 형 동생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8년 정도 디그라 교회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저의 교회는 지역상 여러 사람이 오가는 지역이라 넓은 지역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입니다. 시121편을 늘 기억합니다. 항상 힘을 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제 삶의 목표는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주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입니다.

김ㅇㅇ, 이ㅇㅇ선교사님이 그 지역은 살기 어려운 곳인데, 헌신하고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뒤에서 기도하고 도와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우메시 목사 (벨라 교회)

하나님이 저를 충성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제게는 아내와 두 아들이 있습니다.



▲ 예배 전경

저희 가족 모두는 함께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힌두 가족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했고 어둠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저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2007년 10월 21일 세례를 받았고 세례 받은 후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얼마 후에 제 삶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병이 생겼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성경공부하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도시에서 병 치료와 함께 2년 동안 말씀 공부를 하고 삶의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돈을 들여 치료를 하였지만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제 모습을 본 가족들은 "이제 내 아들이 죽게 되었구나, 이제 곧 죽겠구나" 하며 울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캘커타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검사를 하였습니다. 검사를 받고 의사선생님에게 검사서를 받으러 가기 전에, 저는 주님 앞에 엎드려 1시간 정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 주세요. 제가 지금 정말 죽는 건가요. 제 병을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에 저도 모르는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제 몸에 병이 다 나았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에 의사를 만났습니다. 의사가 모든 검사 서류를 보고 제 증상을 묻더니 "당신에게 병이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정말 당신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니 마음에 평안을 가지고 가서 행복하게 사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다시 살게 된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김ㅇㅇ 선교사님을 만나 사역을 결정하고, 벨라 교회의 목회자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벨라 마을은 처음에 4~5 가정이 함께 믿음 생활을 시작하였으나 교회 건물이 없어 마을회관 방 하나를 빌려 사용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생기자 마을 사람들의 핍박이 시작되었습니다.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고 믿는 가정이 공동 우물을 함께 먹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아주 위험한 사람 몇 명이 교인들에게 협박을 하였습니다. 너희 목회자가 이곳에 오면 우리가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말하였습니다. 교인 중 몇 분이 제게 전화를 하여 마을로 오늘은 오지 마세요라고 하였으나 저는 기도하고 담대함으로 나갔습니다. 정말 마을 입구에 두 젊은 남자가 몸에 총을 감추고 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으며 어디를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예배드리러 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말할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죽일 수 있으면 죽이세요. 당신이 저를 죽여도 주를 위해 일할 것이고, 나를 살려도

(뒷면에 계속 됩니다.)

주를 위해 일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은 기가 막혀 하며 저를 보내 주었습니다. 제가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러 모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핍박 가운데에도 성도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고 교회는 부흥하였습니다. 한국교회들의 도움을 통하여 교회를 짓게 되었고 더 많은 신자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벨라 교회는 두 개의 가정교회와 일곱 개의 셀 그룹, 두 개의 주일 학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우리 벨라 교회가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역에 열심을 다 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에 계신 성도님들께서 교회와 저희 가정과 우리 지역과 인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천을 방문하신 목적과 방문 장소, 그리고 이번 방문을 통해 인도 목사님이 느낀 점들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이번 방문은 CCF 초청으로 왔고, 인도 목사님들이 한국 목회 현장을 배우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다 참여했습니다. 춘천에서 방문한 곳은 광염교회, 효자교회, 거성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사랑의교회, 소망교회, 은혜장로교회, 혈동교회, 강원CBS,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춘천기독교연합회, 와이신협, 남부복지관입니다.

인도 목사님들께서 방문하며 느끼신 것을 들어보면,

1. 목회자 외에 성도들의 헌신을 보며, 각각 자기의 자리에서 섬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인도에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인식이 없어 당신은 하나님의 일, 나는 내 일이라고 합니다.
2. 예배에 참여하든, 어디를 가든, 체계화되어있는 시스템이 신기하다고 합니다.
3. 도시가 깨끗해서 좋았답니다.
4. 우리가 실수를 해도, 모두 친절했다, 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인도에 바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지역의 환경에 서서히 적응시키고 성장시켜 나갈 것인가? 라며, 절실하기에 밤마다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춘천의 성도들이 함께 도고할 수 있도록 사역 상황을 말씀해주세요.

현재 인도 정치 상황은 힌두 정권이라, 기독교가 가장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하려는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 이외에는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 개종하려면 경찰 고위 관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건이 현재 상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게 핍박하는 일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크리스



마스 어린이 성경 집회 매년 행사를 경찰서에 신고하라고 합니다. 자체 문제가 생기면 아무 책임을 안 진다고 합니다. 신고하면 경비 인력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여아를 교육을 잘 안 시키려고 하고, 조혼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위 사항들을 피부로 느끼는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세워진 사역자를 굳건하게 세우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한지는 4년이 되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리더십을 키워왔고 언제든 떠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생할 수 있는 믿음의 유산을 키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에 뿌리박는 신앙이 되도록 돕고 있습니다.

인도 땅에 복음이 왕성해지도록 기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취재. 이은정 사무국장

영화 이야기



막달라 마리아 부활의 증인

올해 들어 사회 각계에서 소위 '미투(mee too)' 열풍이 이슈가 되어 적지 않은 파문을 일으켜 오고 있는 것을 보는데, 이는 여성을 대하는 보수적이고 권위적인 구습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성경에서 그중 4복음서의 막달라 마리아는 바로 이러한 남성 중심의 시각에서 특별히 벗어나는 예외적인 인물의 하나이다.

지난 부활절을 맞아 개봉된 〈막달라 마리아-부활의 증인〉은 남성들보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유일한 여성인 막달라 마리아를 중심으로 복음의 깊은 진리의 한 가닥을 가늠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의 성경영화라 할 수 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 속에서 갈릴리 서쪽 막달라 출신으로 '일곱 악령'에 시달리다가 예수에 의해 고침 받고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으며(눅 8:2), 갈보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마 27:56), 향료를 가지고 무덤을 찾아와(눅 23:55), 요한 및 아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눅 24:01~10), 또한 가버나움 거리에서 세 번이나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바르고 죄를 회개한 여자(눅7:37~50)와 동일시된다. 수 세기 동안 죄의 여인으로 불려야 했던 억압받은 그녀의 삶은 진정 사회가 강요하는 틀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강한 여성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사도들과 동일한 위치에서 예수님의 삶과 고통을 바라보는 증인으로서의 그녀는 우리에게 더욱 깊은 십자가 사랑에 눈뜨게 한다.

〈라이언〉이라는 영화로 미국감독조합상 감독상을 수상한 가스 데이비스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예수의 부활을 가장 처음,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으나 성서 속 몇 줄로 요약된 '막달라 마리아'의 삶을 재구성하여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고스란히 전한다. 명배우 루니 마라와 호아킨 피닉스의 명연기에 힘입어 품격 높은 작품이 되고 있다.



한 걸 음

6월은 호국의 달, 한국전쟁의 6 · 25를 기억하며 나라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몸을 던진 선현(先賢)들을 돌아보아야 할 때다. 몇 년 전 김은국의 〈순교자〉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을 소개한 적이 있지만, 그 후 6.25를 소재로 한 영화가 희귀한 가운데 기독교 장편영화 〈한걸음〉이 2010년에 제작되었다고 한다. 한국 기독교의 대표 순교자 주기철, 손양원, 이기풍, 문준경 목사를 영화와 다큐멘터리로 제작한 권순독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해 만든 영화로 한국의 기독영화로는 드물게 막대한 물량과 인원이 투입된 '블로비스터'영화라고 한다. 탤런트 최성웅집사가 주연을 맡았고, 주기철 목사의 순교를 다룬 영화 〈그의 선택〉의 장대식, 미스코리아 뉴욕출신 송효빈, 특별 우정출연으로는 탤런트 권오중, 최범호, 백애경 등이 참여했다.

가난한 노인 목사(근영)에게 손녀 정인의 치료비를 지불한 후원자가 나타났다. 수술을 무사히 마친 후 후원자를 알아보는데 병원에서는 후원자와의 약속이라며 후원자 밝히기를 꺼린다. 설득 끝에 후원자를 알아낸 목사는 고민에 빠진다. 자신이 평생 미워하면서 살았던 여인(미정)이 후원자였던 것이다. 1950년 3월, 목사가 지리산 부근 마을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을 무렵 미정은 마을 주변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마을 주민들에게 발견된다. 마을에서 지극정성으로 치료하고 간호를 해 주었는데 그녀는 점차 형편이 어려운 주민을 선동하여 포섭하는 사회주의자 본색을 드러내었다. 결국 6.25가 발발해 인민군들이 마을까지 들어오자 그녀는 인민군들을 도와 반동숙청에 기여한다. 인민군들은 기독교인들을 반동이라 지목해 목사는 가족과 친지들을 잃는다. 후원자가 미정인 것을 알게 된 목사는 한동안 정인과 함께 괴로워하지만 정인의 권유로 참된 기독교인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그녀를 찾아 감사의 인사를 하기로 하는데…….

6.25를 경험하지 못한 신세대나 전후 세대들에게 권유해 볼 만한 영화이다.

글. 김춘배 화백

한국교회에 주신 Second Chance

"통일을 위한 New Korea Gathering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

(4월 29일~6월 8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벧엘성전)

분단70주년, 2018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면서, 4월 남북정상회담과 차후 북미정상회담까지 예정되어 한반도 역사의 물줄기가 급박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역사의 키를 쥐고 있는 한국교회는 어느 위치에 서 있어야 할까요? 4월 9일(월) 쥬빌리 춘천모임의 강사로 초빙된 마크 조 선교사(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 DTS 교장)와 동행하신 사역자를 통해 한국교회에 주신 Second Chance에 대한 말씀을 들어 봤습니다. 이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2018 뉴코리아 게더링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4월 29일~6월 8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의 개최 배경과 더불어 한국교회와 춘천의 성도들에게 권하는 메시지를 들어봤습니다.

[대담: 마크 조 선교사(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 DTS 교장), 이주만 선교사(찬양사역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대담자: 이은정 사무국장]

마크 조 선교사님의 본인 소개와 신앙적 배경을 말씀해주세요.

저는 8세에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을 간 1.5 세대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미국에 한국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영어를 못하던 저는 학교에서 따돌림과 인종차별을 겪으며 심령 안이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분노는 폭력으로 이어져 감당이 안 되는 아이로 커갈 즈음에 크리스천 캠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중학생이던 저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에 그것이 공짜 인가요?라고 물었습니다. 내 안에는 분노만이 가득한데, 그런 나를 사랑해주신다는 말씀에 그저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성령의 임하심으로 가슴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 대학원까지 졸업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도응답을 받으며 신앙이 깊어졌고, 결국 저는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를 누리며 잘 살고 있을 즈음에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DTS 과정에 참여를 권유하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중에 치과의사였던 아내와 딸과 함께 모든 삶을 정리하고 DTS 과정에 들어가 선교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북한 선교 사역을 시작하시게 된 동기와 사역내용을 말씀해주세요.

2014년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DTS 과정을 마치고 전도여행을 북한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평양에 내렸을 때, 그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져 많이 울었습니다. 판문점에 가서 분단된 이 민족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강력한 주의 임재가 부어졌습니다. 그날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는데, 주님께서 2018년 4월 29일부터 40주야를 내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동일한 말씀으로 2번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품고 하와이로 돌아왔고, 하와이 코나 열방대학 동북아 DTS 교장으로 섬기며 3년을 기도하였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미국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를 시작으로 브라질, 국내외 한인 교회와 현지교회들을 다니며 이 비전을 나누고 있습니다.

2018 뉴코리아 게더링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4월 29일~6월 8일)를 준비하게 된 배경을 말씀해주세요. 한국교회에 주신 Second Chance 의 의미를 설명해주세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2014년에 이런 비전을 나누었을 때에는 호응을 하는 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지금, 한반도의 흐름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고, 4년 전 주께서 주셨던 이 비전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기도하며 2018 뉴코리아 게더링 "통일을 위한 40일 24시간 예배와 기도"(4월 29일~6월 8일)라는 이름을 정하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비전을 나누던 중, 한 분이 기도 후에 전해준 마음은 주님께서 이 예배는 우리 민족 통일을 위해 주신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전해들은 어느 전도여행 팀이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이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우연히 유대력 달력을 보게 되었는데, 2018년 4월 29일은 민수기 9장1~12절의 말씀처럼, 유월절 제사를 드릴 수 있는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의 날이라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한국교회에게 주시는 "Second Chance"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기회 First Chance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았던 1907년, 성령으로 말미암는 주의 회개가 온 도시로 전이되고, 강력한 주의 임재가 그 땅을 덮었던 평양 대부흥 이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회와 같이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Second Chance 두 번째 기회 앞에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두지 않고, 주의 임재를 구하며, 오직 주께 향한 경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는 40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예배의 장소로 파주 오산리 기도원이라는 감동을 주셨고, 40여일의 대관료가 수 천 만원이었지만 한 분의 후원으로 계약이 완료되는 기적 같은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주만 선교사님께서도 이 일에 동역하고 계시는데, 한국교회와 춘천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으신 말씀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4년 전 무명의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 2018년 4월 29일부터 40일간 주야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론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40일 전 후로 민족의 운명이 걸린 여러 정상회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우리의 비전에 대해 고개를 지으며 의심의 눈초리를 주었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연락들을 주시며 격려를 해주고 있습니다. 40일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주께서 말씀하신대로 온전히 주야로 주님만을 경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자 합니다.



현재 부산 포항 대전 서울 일산 분당 하남 춘천 한동대등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와 디아스포라들과 미국 브라질 이스라엘 터키 일본 중국등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지체들이 각자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예배를 신청하여 40일 24시간의 퍼즐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누구의 사역도 아니고 어느 교회나 단체만의 일도 아닌 주님의 몸 된 하나의 교회 가운데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칠천의 무명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나아올 것을 기대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홀로 기도해 오셨던 분들, 교회 안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왔던 기도 모임들, 대학 동아리와 선교 단체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누구나 40일 기간에 아무 때든지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일정을 잠시만 내려놓고 단 하루 단 한 시간이라도 올라와서 함께 주 앞에 엎드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구름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구름이 되어 큰 비를 내리는 것처럼, 민족의 운명이 걸린 이 때에 우리도 연합하고 하나 되어 한반도 가운데 큰 은혜와 성령의 비가 임하는 큰 구름으로 모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주께서 부르셨으니 함께 주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40일 24시간 연속 예배 가운데 민족을 대표해서 섬기실 수 있습니다. 예배와 기도 인도로 섬기기 원하시는 교회나 팀은 날짜와 시간을 미리 신청해 주시면, 연속된 전체 예배의 한 퍼즐이 되실 수 있습니다.

동참문의 : 이주만 선교사 010-6786-3719)

건강이야기



봄철 미세먼지의 습격, 내 호흡기 건강 지키는 법

글/정형만 장로
(참사랑내과 원장, 소양제일교회 장로)

황사와 미세먼지가 왜 나쁜가?

한반도와 일본에서 관측되는 황사의 크기는 2.5㎛ 이하의 초미세먼지다. 코점막은 직경 10㎛ 이상의 먼지나 이물질을 걸러내고 기관지는 직경 5㎛ 정도의 이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직접 호흡기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호흡기로 들어온 미세먼지는 알레르기 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을 유발한다. 초미세먼지는 철, 규소, 구리, 납, 카드뮴, 알루미늄 등의 중금속과 발암물질을 포함한 채로 폐포와 혈관으로 들어가 전신을 순환해 치매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몸 안에서 일으키는 '나쁜' 변화들

미세먼지는 우리 몸의 가장 최전선 방어막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뿐 아니라, 호흡기, 뇌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미세먼지는 보통 코와 입으로 들어온다. 숨을 들이쉴 때 들어오는데 입자 크기가 작으면 코점막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폐 속 공기주머니)까지 침투한다. 그러면 폐포에서 산소와 이산화탄소가 교환될 때 미세먼지가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에 섞여 들어가면서 온몸 혈관으로 퍼진다. 아래와 같은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

혈액순환 장애: 미세먼지가 폐포의 모세혈관을 통해 혈액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몸은 백혈구 등의 면역 반응 물질을 만든다. 면역 반응 물질이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혈액이 끈적해진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이 생길 수 있다.

인지 기능 저하: 뇌에는 유해물질을 걸러내는 'BBB'라는 장벽이 있다. 하지만 입자가 작은 초미세먼지는 이 장벽까지 뚫고 뇌 안으로 침투할 수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면 뇌의 신경세포가 손상되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

폐·기관지 손상: 미세먼지를 많이 마시면 폐 세포가 손상되고 돌연변이가 생기면서 폐암 위험이 커진다. 덴마크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 높아질 때마다 폐암 위험이 18% 증가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10㎍/㎥ 높아질 때마다 폐암 위험이 22%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수록 만성폐쇄성 폐질환 환자 입원율과 사망률이 높아진다는 국내 질병관리본부 조사 자료도 있다. 만성폐쇄성 폐질환은 기도와 기관지에 만성 염증이 생겨 기도가 좁아지는 병이다.

태아 뇌 성장 방해: 산모는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양을 전달한다. 그런데 산모 혈액 속에 미세먼지가 많으면 이로 인해 생긴 염증, 끈적끈적한 혈액이 태아로의 영양 공급을 방해한다.

(기사 참조: 미세먼지, 태아 대뇌 피질 성장 저해한다. 한겨레-2018.3.8.)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가?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노인과 소아는 더욱 취약하므로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스크는 성능에 따라 KF(Korea Filter)80, 94, 99 등으로 표시한다. KF80이란 직경 0.6㎛의 미세먼지를 80% 이상 거르는 성능을 의미하며, KF94는 직경 0.4㎛의 미세먼지를 94% 이상 거를 수 있다. 가능하면 얼굴을 충분히 가리고 얼굴과 압착이 되는 것이 좋으며 성능이 높은 것이 좋다. 그러나 호흡이 갑갑하면 오히려 착용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착용감이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여러 매체를 통해 알 수 있다. 약간 나쁨 단계부터는 가급적 외출을 삼가는 것이 좋고, 불가피하게 외출 시에는 안경과 모자, 소매가 긴 옷,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다. 비가 올 때도 비를 직접 맞지 않도록 주의한다. 외출 후에는 몸에 붙은 미세먼지를 제거하기 위해 양치와 머리를 감는 것이 좋다. 눈이 가려울 때는 비비지 말고 식염수나 인공눈물로 씻어내며, 코 안도 세척해주면 좋다. 체내 수분을 높이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은 황사에 묻어 들어온 중금속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소변을 통한 배출을 돕는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코 안이 건조해지고 코 안에 있는 미세한 섬모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실내가 건조하면 호흡기 점막도 건조해져 바이러스, 세균, 먼지 등에 대한 호흡기 방어력이 떨어지므로 실내 온도는 20~22도, 습도는 40~60%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코로 숨 쉬는 것이 도움이 되는가?

평소에 코로 호흡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다. 코는 호흡기 중 일차적인 방어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거치지 않고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 찬 공기와 함께 세균, 바이러스, 각종 유해물질이 바로 기관이나 기관지로 넘어가게 되어 기침이나 가래, 호흡곤란,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한다. 코로 숨을 쉬면서 건강한 코점막을 유지해야 공기 중의 먼지를 거르고 세균을 막아주며 차가운 공기를 따뜻하게 해준다. 건조한 공기를 촉촉하게 만들어 주는 기능도 있어 목과 폐를 보호하기 때문에 콧구멍으로 숨쉬는 것이 필수적이다.



유머

신도가 줄어들기를 바라는목사

한 젊은 목사가 걱정스럽게 현대인의 비도덕성과 물질 만능주의와 소유욕에 대한 비판을 늘어놓으면서, 교회의 신자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안타깝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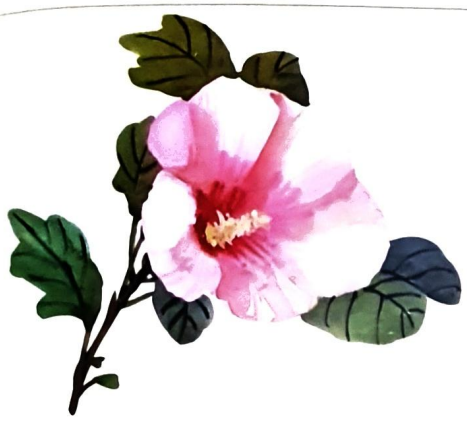
그때 한 원로목사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목사님께서 고생이 많군요. 말씀을 듣고 보니 제가 목회하는 곳은 행복한 곳이군요.
신자수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곳이니까요."

"신자수가 줄어드는데 좋다니요? 어디서 목회하시는데요?"

.
.
.

"아, 저는 교도소 담당 목사입니다."



한서 농촌계몽 시작 100주년을 되돌아보면서

「한서 남궁 억의 생애」 발간에 붙여

글 / 신현포 장로 (종교교회 원로장로, 한서선교회 연구위원)



「불굴의 얼」은 한솔 김세한이 쓴 한서의 전기로서 한서의 믿음과 그의 무궁화 정신을 잘 보여주는 한서의 일생을 기록한 책이다. 을사늑약 이후 일제의 억압과 회유 그리고 각종 고문 가운데서도 순교하기까지 굴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 '얼', 그 정신을 기리는 「불굴의 얼」은 바로 한서 순교의 믿음과 사회구원의 믿음 그리고 그의 시대정신인 무궁화 정신을 이르는 것이라 본다.

「불굴의 얼」의 저자인 한솔은 한서의 제자는 아니나 자라면서 어린 시절부터 한서의 명성을 듣고 제자들 못지 않게 한서의 높은 뜻을 숭모하면서 그의 전기를 쓰기로 마음먹고 황성신문을 비롯한 각종 신문과 한서의 저술물들, 그리고 한서의 가족과 주위에서 한서를 모셨던 분들의 생생한 증언과 일기들을 기초로 하여, 한서가 순교한 지 20년이 되는 1959년에 「불굴의 얼」이라는 제목으로 한서의 전기를 출간한 것이다.

올해 두 번째 무궁화 주일을 맞아, 한서의 농촌 계몽 시작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도서출판 키아츠에서 「불굴의 얼」을 「한서 남궁 억의 생애」라는 이름으로 다시 발간하는 일은 그 의미가 특별하다 하겠다.

종교교회 한서 선교회는 한서의 믿음과 그의 무궁화 정신을 갈고 다듬어서 선교사역에 이바지하게 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 성장에 디딤돌로 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과 정신을 찾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서에 대한 수많은 저술물들이 있음에도 정작 정신적 지도자로서 신앙 구국정신, 교육입국 정신, 농촌계몽 정신으로 살아온 한서에 대한 연구가 거의 전혀 없는 실정이다. 다만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교육 정신 분야에 관하여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약 100여 편에 이르는 연구논문이 있으나 정작 무궁화 정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신앙 구국정신, 농촌계몽 정신 등 정신 분야에 관한 연구는 너무나 미흡한 실정이다.

「불굴의 얼」재발간을 계기로 특히 젊은 세대들이 관심을 두고 활발한 연구 작업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기독교계에서의 연구가 절실하게 필요한 바, 기독 역사학, 기독 사회학 분야에서 관심을 두고 기독교 한국선교 이후 근세사에 새롭게 형성된 기독교 가치관에 의한 시대정신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더욱 간절하다.「불굴의 얼」은 60여 년 전에 발간된 것으로 내용 중에 한문이 많이 혼용되었고 또한 쓰인 단어가 지금은 쓰이지 않는 고어가 많이 쓰여 있어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현대어로 손질하여 출간하므로 젊은이들도 한서에 대하여 쉽게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 일본의 감시와 억압에 지쳐 피해 가듯 보리울에 내려가 일찍부터 "지식인들아 농민의 지도자가 되어라"라고 권유하던 그 일을 스스로 실천하여 자조 자립을 가르치며 근면 근로정신을 몸소 삶으로 보여주면서 농촌의 새벽을 깨우는 농촌계몽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한서의 삶을 보면서 새마을정신은 벌써 100여 년 전에 농촌계몽정신이라는 씨앗으로 보리울에 뿌려져 1930년대는 전국 방방곡곡에 옮겨져 무럭무럭 자라나 상록수 소설의 주제가 되기까지 하였으며, 그중에서 제일 굵은 가지가 가나안 정신으로 이어지고 다시 새마을정신으로 이어져 꽃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설악산 돌을 날라
독립 기초 다져놓고
청초호 자유수를
영 너머로 실어 넘겨
민주의 자유 강산
이뤄놓고 보리라



「불굴의 얼」첫 페이지의 앞에 실려 있는 한서의 자작시로서, 을사늑약이 있은 지 반년이 채 안 되는 1906년 2월, 어느 모임에서 읊은 한서의 자작시이다.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긴 나라의 국권을 되찾기 위한 독립을 주장함으로써 일본을 상대로 하는 최초의 독립운동인 것이다. 또한, 독립은 하되 단순한 왕정 회복이 아니라 '민'이 주인인 자유민주국가로 독립을 시키자는 것이다. 망했다고 하지만 아직 왕정 하의 관료의 신분으로 또한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유민주체제로 독립시키자는 주장은 일제와 아울러 기존 보수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서 함부로 내세우기 어려운 주장이며 즉흥적으로 나올 수 없는 세대를 뛰어넘는 시대정신으로써 한서의 앞서가는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게 해 준다. 한서의 이 같은 자유민주정신은 근세사의 시대정신으로 이어져 기독교인들이 주축이었던 1919년 3.1만세운동 후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 비록 국민과 영토는 없는 망명정부일지라도 자유민주주의의 대통령 중심제의 민주 공화정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라 본다. 또한, 해방 후 좌우의 격렬한 격돌 가운데서도 한서의 자유민주정신과 반공정신이 근세사의 시대정신 주류로 이어져 왔기에 대한민국의 수립이 이루어졌으며, 절체절명의 6.25남침에도 베트남처럼 공산화되지 아니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었다고 본다.

한서는 특히 식민시대 암흑기를 견디어 낸 신앙 구국정신, 교육입국 정신, 농촌계몽 정신 등의 시대정신을 내세우고, 전하고, 가르칠 때 언제나 무궁화를 매개(무궁화 자수본, 어린이놀이, 노래가사 등)로 하였다.

그는 보리울에서 손수 무궁화를 기를 때에 그의 시대정신을 비료로 주었고 전국 교회와 학교를 통하여 농촌지도자들에게 전할 때는 그의 시대정신으로 포장하여 전해졌기에 일제는 무궁화 묘목과 애국 독립운동은 한서 남궁 억과 동의어라고 여기고 묘포장의 묘목은 물론 전국 마을마다 심어진 무궁화를 뽑아 불태웠으며 반공정신이 투철하였던 한서에 십자가당 사건이라는 가당치 않은 올무를 씌워 갖은 악행으로 고문함으로써 순교에 이르게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한서 선교회는 한서의 시대정신을 모두 한데 묶어 〈한서의 무궁화 정신〉이라 부르고 있다.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4월 첫째 주를 무궁화 주일로 지키므로 감리교회의 역사와 정체성을 심어 주기 위하여 올해 4월 첫째 주일인 1일 부활 주일에 전국 감리교회가 무궁화 주일로 지키고, 무궁화 심기를 하며 한서의 무궁화에 관한 백일장, 포럼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 잊혀가고 있는 기독교 민족지도자로서 감리교회의 자랑인 한서의 믿음과 그의 무궁화 정신이 재조명될 것이며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내려갈 것이다.

또한, 2016년 11월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 공포됨으로써 무궁화의 보급 관리 및 무궁화 관련 각종 문화 행사(작품공모, 심포지엄, 포럼 등)와 무궁화 명소 조성 및 연구개발사업 등의 진흥사업이 지속해서 체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었다. 무궁화를 국화로 지정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무궁화 관련 단체들이 애국 독립운동의 상징이며 국가의 표상인 무궁화를 길이 기념하자는 뜻에서 2007년부터 8월 8일(∞표시가 두 개로)을 무궁화의 날로 정하고 국가 지정을 요구하고 있다.

앞으로 무궁화를 심고 가꾸고, 각종 무궁화 관련 문화행사 등과 더불어 선비정신의 뒤를 이어 근세사를 이끌어온 한서의 순교 믿음과 사회구원의 믿음 그리고 그의 무궁화 정신을 찾고 기리는 일이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끝으로 10여 년 전 미국 LA에 사시는 한서의 외손녀가 되는 김은심 권사(남궁 자경 따님)가 서울에 있는 그의 언니 김선심 권사(종교교회)를 통하여「불굴의 얼」한 권을 한서 선교회에 전하여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이번 재발간이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며 뒤늦게나마 김은심 권사와 김선심 권사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99주년 2018년 3.1절 연합예배



99주년 3.1절 연합예배가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신재원 목사) 주최로 2월 28일(수) 저녁7시에 춘천중앙성결교회(유동선 목사)에서 드려졌다. 춘천중앙성결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3.1절 연합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춘천광명장로교회)가 사회를 맡았다. 대표기도는 부회장 김정호 장로(춘천장로연합회 회장, 춘천제일장로교회), 성경말씀은 서기 김용도 목사(푸른초장장로교회)가 마태복음 25장 31~40절을 봉독했다. 이어 춘천중앙성결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은 후, 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의 인사말씀 및 강사소개가 이어졌다. 이 날 강사로 초빙된 황교안 전총리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역할"이란 제목으로 설교했다. 전도사이기도 한 황 전총리는 "복음으로 훈련된 그리스도인이 교회 생활을 넘어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교회가 평신도의 역량을 키우면, 전문성과 함께 영성으로 사역의 범위가 넓어진다."고 교회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과제는 가정을 살리는 것이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히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어 주라. 그들에게 말할 기회와 일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리시절의 간증과 함께 잔잔하지만 명료하게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이어진 특별기도에서는 "삼일정신 계승을 위해" 박인관 목사(춘천광염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개헌과 총선을 위해" 지용찬 목사(춘천은혜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남북평화통일을 위해" 피종호 목사(나눔성결교회, 춘천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 "춘천성시화를 위해"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춘천성시화운동본부 부이사장)의 인도로 진행되었다. 증경회장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봉헌찬양이 있었다. 이어서 부회장 홍요셉 목사(예사랑교회, 춘천목회자연합회 회장)의 독립선언문낭독이 있었고, 임윤식 장로(순복음춘천교회, 춘천홀리클럽 회장)의 만세삼창이 있었다. 광고와 애국가 제창 후, 직전회장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 했다. 이날 예배는 헌금위원은 춘천광명장로교회, 안내에는 홀리클럽과 춘천중앙성결교회, 주차위원은 춘천제일장로교회가 맡아 섬겼다.

한국교회 여성연합회 주최 2018 세계기도일 예배



한국교회 여성연합회(회장 심정례 권사) 주최로 2018 세계기도일 예배가 3월 2일(금) 오전11시에 중앙감리교회(권오서 감독) 덕수홀에서 있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창1:31)의 주제로 열린 이번 예배에는 70여명의 회원들이 모여 기도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춘천장로교연합회 목회 비전세미나



춘천장로교연합회(회장 김해영 목사)주최로 열린 목회 비전세미나가 3월 14일(수) 오전10시에 주향교회(이병철 목사)에서 있었다. 이번 세미나는 "통일목회"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는데, 초청 강사는 송원근 목사(한선통일목회연구원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 정종기 목사(한선통일목회연구부원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교수)였다. 춘천장로교단 목회자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갖고 마쳤다.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 부활절 계란 나눔



춘천경찰서 교경협의회(김원중 목사)에서는 부활절을 맞아 지난 3월 29일(목)에 춘천경찰서에 계란과 음료수를 전달하였다. 이 날 행사에서는 교경협의회 임원과 회원들이 함께 하였는데, 모든 경찰가족들에게 부활의 복된 소식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진행하였다.

부활절 계란 군장병과 함께 나누기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이수형 이사장)에서는 3월 30일(토) 오전11시에 신성감리교회(박상칠 목사)에서 있었다. 지회장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 사회로 대표기도에는 구성덕 목사(2군단교회 담임), 설교와 인사말씀에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가 맡았다. 군복음화를 위한 통성기도가 있은 후, 이수형 목사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이어 부활절 계란을 나누는 행사를 가졌는데, 올해에는 춘천과 화천의 10개 교회 후원으로 계란 350판(10,260개)을 2군단 교회를 비롯해 76개 교회에 전달했다.

2018 부활절 연합예배

2018 부활절 연합예배가 지난 4월 1일(주일) 새벽6시에 춘천기독교연합회(회장 신재원 목사) 주최로 소양성결교회(김선일 목사)에서 있었다. 소양성결교회 찬양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부활절연합예배는 수석부회장 김종익 목사(춘천광명장로교회)의 사회로 대표기도에는 부회장 김정호 장로(춘천제일장로교회), 성경말씀은 서기 김용도 목사(푸른초장장로교회)가 마태복음 28장 1~10절을 봉독했다. 이어 소양성결교회 찬양대의 특별찬양이 있었고, 인사말씀과 강사소개에는 회장 신재원 목사(새춘천성결교회)가 진행했다. 이 날 설교는 각 교단 대표가 '부활의 증인들! 이라는 제목으로 6파트로 나뉘어 맡았다. 1. 역사적 의미에는 김혜영 목사(중앙장로교회), 2. 성경적 의미에는 김선일 목사(소양성결교회), 3. 신앙적 의미에는 손학균 목사(석사감리교회), 4. 미래적 의미에는 조영호 목사(춘천그리스도의교회), 5. 교회와 부활에는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 6. 고난과 부활에는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의 순서로 말씀이 선포되었다. 이어서 "민족 평화통일 위해", "총선과 개헌을 위해", "춘천성시화와 춘천시 발전을 위해" 통성기도가 있었다. 이어 감사 김원중 목사(춘천우리장로교회)의 헌금기도에 이어, 강원CBS소년소녀합창단의 봉헌찬양이 있은 후, 직전회장 박상칠 목사(신성감리교회)의 축도로 마쳤다. 본 예배에는 순복음춘천교회에서 헌금위원을, 예배 및 안내위원에는 춘천장로연합회, 차량안내위원에는 소양성결교회가 맡아 섬겼다.



춘천중앙교회 120주년 창립 기념 예배



춘천중앙교회 창립 120주년 기념 예배가 2018년 4월 1일(주일) 오후 3시에 대예배당에서 있었다. 권오서 담임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새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돌보기로 들여다보니 비극적인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걸음 뒤로 떨어져서 주님의 눈으로 우리 교회가 걸어갔던 신앙의 삶의 궤적을 보니, 걸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상상할 수 없었던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날에는 한국교회 교회와 교단, 지역 교계 지도자들과 최문순 도지사와 기관장들이 초대되어, 원로장로와 파송 선교사를 비롯해 온 성도들과 함께 기념 예배를 드렸다. 기념 예배 후에는 춘천중앙교회 120년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아낸 역사전시실 개관식과 광야 예배당 기공 예배가 있었다

화천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한정협(한국기독교탈북민장착지원협의회) 주관과 춘천기독교연합회(신재원 회장) 주최로 화천 하나원 교육생 종교 및 도시문화생활체험 행사가 4월 14일(토) 오전10시에 광염교회(박인관 목사)에서 감리교단 섬김으로 있었다. 이 날에는 30여명의 교육생들이 참여하였는데, 봉사자들과 식사



교제도 하면서, 시내 곳곳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코이디아선교회 제2회 전도세미나



사랑의교회 코이디아선교회 주최로 제2회 전도세미나가 4월 17일(화) 오전10시~오후5시에 사랑의교회(윤대영 목사)에서 있었다. "힘든 길도 함께 하면 행복입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된 본 세미나는 서울 원주 인천등 8개 교회에서 참여하여 관계 맺기 중심의 전도전략을 나누고 실천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굿네이버스 강원본부 춘천남산교회 굿워터 프로젝트 협약



지난 4월 22일(일), 국제구호개발 NGO 굿네이버스 강원본부(본부장 박미경)에서는 춘천남산교회(신성환 목사)와 '굿워터 프로젝트-아프리카 잠비아 학교기반 식수위생지원사업' 협약식을 진행했다. 춘천남산교회는 창립 101주년을 맞이하여, 깨끗한 물을 얻지 못해 고통 받는 아프리카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나누고 섬기는 일에 나섰다. 모금된 성금은 아프리카 잠비아 홍웨 지역 내 비캉고 중학교의 식수개선을 위한 볼탱크, 핸드펌프, 노후화 된 수도관 재설치, 화장실 개보수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목회자 국내 성지순례 및 역사탐방



춘천목회자연합회(회장 홍요셉 목사)에서는 4월 23일(월)~24일(화)에 강화도 일대 국내 성지순례 및 역사탐방 행사를 가졌다. 이 날 행사에는 목회자 부부 50여명이 참여하여 강화도(교산교회, 홍인교회, 성공회 온수리, 강화성당, 평화전망대, 고려궁지)일대 순례와 탐방하였다.

인도 비하르 목회자 세 분 성시본부 방문



4월 25일(수) 오후에 인도 비하르 목회자 3분이 김ㅇㅇ 선교사(GMP 소속) 부부와 함께 성시본부를 방문하였다. 조영춘 본부장의 인도로 성시화운동의 역사와 사역에 대해 설명을 듣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교회, 효자교회, 은혜교회를 비롯해 춘천의 교회를 방문하여 선교 소식도 나누고, 강원CBS와 복지관등 여러 기관등도 방문하였다. 지세한 소식은 본 호 선교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을 위한 거리 상담 지원(아웃리치) 활동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 운영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는(소장 윤옥현) 2018년 3월 27일(화)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퇴계동 스무숲 솔바람 공원에서 청소년을 거리에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접근하여 구호 및 보호활동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사랑의 밥차"는 따뜻한 식사와 차 한 잔 나누며 고민을 이야기하는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며, 청소년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위기청소년 통합 발굴 및 보호를 위한 2018년도 1차 "찾아가는 검정고시 응원 캠페인"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소장 윤옥현)는 2018년 4월 7일(금)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소양중학교에서 치룬 2018학년도 제1회 초·중·고 검정고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검정고시 응원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초·중·고 학력 취득을 위한 검정고시를 준비한 청소년 300여명에게 간식 및 홍보물품을 제공하였다.

취재/사진. 이은정

춘천교회 소식

순복음춘천교회, 2군단 기독교 군종병 수련회 이수형 목사 "준비된 믿음의 사람" 메시지 전해



2군단 기독교 군종병 수련회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선교훈련"이란 주제로 3월 14일(수)~16일(금)에 춘천시 청소년여행의 집에서 있었다. 이번 수련회는 경배와 찬양, 개회예배, 강의(상담기법), 선택강의(행정,전도,예배,제자양육,군종업무,공동체), 저녁집회, 예수님과의 여행일지 작성, 체육활동, QA(예수님 궁금합니다), 폐회예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군종병들의 영적훈련 시간을 가졌다. 군선교연합회 강원지회 이사장 이수형 목사(순복음춘천교회)는 2군단 군종병, 군목, 군인교회 성도들이 참석한 저녁집회에서 열왕기상 18장 20~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선포하였다. 말씀 선포 후, 개인의 신앙과 사명, 군 생활을 위해 특별기도 시간을 가졌다. 저녁집회를 마친 후에는 군종들에게 사랑이 담긴 간식을 제공하며 격려하였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 2018 춘천성령포럼 한국교회 정체성과 한국교회 설계 주제로 개최 개회사 이수형 목사, 발제 소강석 박사, 박명수 박사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창립29주년을 맞아 춘천성령포럼을 개최하였다. 사단법인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성령세계2020(대회장 소강석 목사) 주최, 한국기독교역사연구원(원장 안준배 목사) 주관으로 '춘천성령포럼' 이 3월 26일(월) 오전10시에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 본당에서 개최되었다.

1부 개회식은 강헌식 목사(평택순복음교회)의 사회, 김창곤 목사(세성협 사무총장)의 기도, 순복음춘천교회 중창단의 찬양, 이수형 목사의 개회사로 진행되었다. 포럼에서는 소강석 박사(새에덴교회)가 '윤동주 시 세계에 나타난 한국교회 정체성'에 대해 발제하고, 안준배 박사(한국기독교성령역사연구원장)가 논찬하였다. 오후 시간에는 박명수 박사(서울신대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장)가 '한국교회 당면 과제와 그 대책'에 대해 발제하고, 한정애 교수(협성신학대학교 명예교수)가 논찬하였다. 포럼 후 소강석 박사의 「21세기 목회 뉴트랜드」 특강이 이어졌다. 소강석 박사는 탈교회 현상이 가속화 되어 가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서 이제는 자신의 목회 영역, 커뮤니티 교회를 넘어서 민족교회와 세계화 교회를 향한 네트워크를 이루기 위한 네트워크 교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2018 춘천성령성회
강사에는 배진기 소강석 정인찬 정균양 목사



세계성령중앙협의회 창립 29주년 기념 2018 춘천성령성회가 3월 25일(주일)~28일(수)까지 매일 저녁 순복음춘천교회(담임 이수형 목사)에서 열렸다. 세계성령중앙협의회(대표회장 이수형 목사) 주최, 순복음춘천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춘천성령성회에서 대표회장 이수형 목사는 "성회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결단으로 있어지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첫날 저녁에 배진기 목사(포항안디옥교회)가 이사야 25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자신만만(自信滿滿)」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둘째 날 강사인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는 에베소서 1장 22~23절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영광을 회복하라」 제목의 말씀을 전하였다. 셋째 날 강사인 정인찬 목사(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총장)는 요한복음 20장 19~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도와 성령의 역사」 제목의 말씀을 잔잔하면서도 힘 있게 전하였다. 마지막 날 강사인 정균양 목사(대한민국 국가조찬기도회 사무총장)는 누가복음 5장 1~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위대한 축복」 제목의 말씀을 목회사역의 간증과 함께 전하였다. 성회 기간 중 순복음춘천교회 좋은 친구, 호산나, 여호수아 찬양단의 찬양인도와 임마누엘, 갈릴리, 시온, 장로회 찬양대가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 드렸으며, 아멘코러스 남성중창단, 고운가루 몸 찬양단, 이경수 장로 색소폰 연주, 하늘소리 여성중창단의 특송이 있었다. 이번 2018 춘천성령성회는 개인 영적성장, 거룩성 회복은 물론, 한국교회의 성령운동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개최했으며, 이 성회를 시작으로 세성협은 2018 성령 지역성회(서울, 용인, 성남, 파주, 일산, 충주, 포항)를 개최하여 '성령으로 세계를!' 주제로 성령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순복음춘천교회 창립 46주년 기념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행사로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는 순복음춘천교회(이수형 목사)가 창립 46주년을 맞아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4월 8일(주일) 오후2시 30분 본당에서 있었다. 이날 예배를 통해 안수집사 8명, 권사 17명, 명예권사 1명이 세워졌으며, 3명(유동열, 우상종, 정성옥 장로)의 장로은퇴식이 함께 있었다.

취재/사진. 순복음춘천교회 명예기자 정종승 목사

엘리엘 찬양집회 "End Time-Maranatha"
춘천 지역 교회의 중.고.청년들이
초교파찬양집회 열어

일시: 매월1회, 셋째 주 토요일 오후5시
장소: 안디옥교회

엘리엘 찬양집회가 매월1회, 셋째 주 토요일 오후5시에 안디옥교회(유진형 목사)에서 춘천 지역 교회의 중 · 고 · 청년들이 초교파적으로 결성된 찬양팀을 중심으로 열리고 있다. 엘리엘 찬양집회는 복음전달자인 청년선교사들을 일으키며, 춘천지역의 청년부흥, 선교부흥을 일으키는 데 목적이 있다. 매 집회 마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소중한 영혼들로 부흥되고 있으며, 거룩한 예배의 선한 능력이 중 · 고 · 청년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특별히 엘리엘 찬양팀은 찬양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춘천의 미자립 교회에 찬양팀을 파송하여 예배를 섬기는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연락처: 010-6311-2454)

[5월 엘리엘 찬양집회 일정 안내]
일시 : 5월 26일(토) 오후 5시
장소 : 춘천안디옥교회(유진형 담임목사) 2층 중예배실
초청강사 : 김선교 선교사 (다윗의 열쇠 대표)

안디옥교회 명예기자 최용신 집사

각 교회의 명예기자를 통해 교회 행사를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holycc1972@hanmail.net)

모임 안내 1

민들레 중보기도 모임
일 시 매주 화요일 PM 8:00~9:20
장 소 와이신협 3층 회의실(금강로 120)

모임 안내 2

춘천성시화운동본부 정기이사회
일 시 5월 11일(금) 오전7시
장 소 광염교회(박인관 목사)

모임 안내 3

2018 지구촌 사랑나눔 캠페인
일 시 5월 14일(월) 오후2시
장 소 호반체육관 주 관 월드비전

모임 안내 4

춘천기독교직장선교회 정기모임
일 시 5월 29일(화) 정오예배
장 소 동부교회(김한호 목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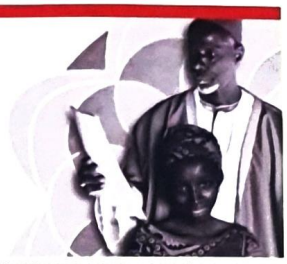


2018 기도를 통한 무슬림 사랑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2018년 5월 15일 - 6월 13일

30일 기도 운동 참여 문의 : 예수전도단 춘천지부 033-252-1128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책자 2,500원)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이라"(롬15:9)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무슬림들이 거룩한 달로 지키는 라마단 기간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도록 간구하는 전 세계적인 기도운동입니다.
우리가 30일 동안 무슬림을 위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무슬림 세계를 위한 기도의 용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무슬림 가운데 나타나실 하나님의 영광과 부흥을 기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슬림을 끌어안는 귀한 중보의 자리로 함께 나아갑시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 대해 설명해주십시오.

무슬림이란 무함마드와 그가 말하는 알라에게 복종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슬림이란 이슬람교도들을 말합니다. 이슬람이 사용하는 음력으로 9월이 되면 한 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는 라마단 금식 기간을 갖습니다. 이 기간에 무슬림들은 해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음식과 음료를 전혀 먹지 않으며, 하루에 세 번 또는 다섯 번 기도하면서 절제된 생활을 합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씻어지고 무슬림 형제애가 돈독해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무슬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는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무슬림들을 위해 중보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고 격려하기 위해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 책자를 제작한지 올해로 벌써 25년이 되었습니다. 시작은 1992년 중동 지역의 소수의 선교사와 교회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오지에서 소수민족의 언어로 동참하는 사람들을 비롯해 전 세계 백만여 명의 그리스도인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이슬람 국가들은 이슬람 극단주의와 수많은 자연 재해들, 쉼 없는 전쟁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살펴보았듯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상 가장 많은 무슬림 운동이 일어나는 감격적인 일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기도 운동에 동참해 오신 여러분들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독자들이 기도 운동을 통해 무슬림들을 이해하고 마음을 열게 되었으며, 무슬림을 향한 비할 데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 주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무슬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한국적 상황을 볼 때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에는 어떤 자세로 동참하면 좋을까요?

외형적인 절제의 모습을 강조하는 무슬림들에게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강조하는 말씀과 우리의 삶이 다르다면 그들은 기독교를 더 이상 가치 있는 종교로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대할 때는 지혜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무슬림들을 무조건 적대시한다면, 십자군 전쟁 때의 기독교의 잔인한 행동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또 기독교에 대해 반감으로 복음에 대한 마음의 문을 더 닫게 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두려움과 거부감을 갖고 피하기만 한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볼 기회를 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0일 기도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슬림들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행하신 것처럼 내면의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칼이 아니라 사랑에서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운동

"복음적 통일은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쥬빌리통일구국기도회
5월 77차 춘천모임



• 강사 : 현장사역자
• 일시 : 2018. 5. 14일(월) 저녁 7:15
• 장소 : 주향교회(이병철 목사, 새청말길 5)
• 문의 : 010-6254-3162, 010-5675-873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신학
The Presbyterian General Assembly Theological Seminary

신입생 편입생 모집

)모집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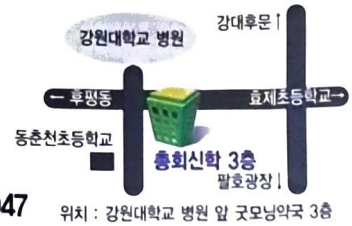
과정	학제	지원자격
신학부	(주/야간) 8학기	●세례를 받은 자 ●성별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사명이 투철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중퇴한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이 가능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본 과정 3학년에 편입됨
연구원	(주/야간) 4학기	●신학부에서 각 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 졸업 또는 이수한 자 ●본원이 인정하는 타신학에서 중퇴 또는 유학 등으로 학업을 쉬고 있는 자는 해당 학기에 편입됨
사이버 신학과정 문의 : www.cds.re.kr 02)3472-3181		

)소개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신학으로서 최고의 학업시설과 최고의 교수진을 자랑하는 청교도 개혁주의 보수신학입니다. 본 교단은 여목제도가 있습니다.

)특전
방학없이 2년 8학기 수업으로 조기수료가 가능함 여목제도가 잘 활성화 되어 있음.
획기적인 장학제도로 인하여 학비가 저렴함
본 과정은 서울 본원과 각 지역 캠퍼스와 동일함

)입학시 구비서류
입학원서, 사진, 신분증 사본
편입자는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제출

총회신학 춘천캠퍼스
강원도 춘천시 백령로 153
033)243-5354 / 010-5370-6047



위치 : 강원대학교 병원 앞 굿모닝약국 3층

알려드립니다

알림 등록 문의 : 033.256.1260

춘천홀리클럽 (홀리클럽 정기기도회)

일시 : 매 짝수달 셋째주 화요일 오전 6:30
장소 : 지도 목사님 또는 임원교회 순회 시행
회비 : 헌금으로 진행
http://cafe.daum.net/ccholly (춘천홀리클럽)

춘천성시합창단 단원수시모집

정기연습 :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장소 : 사랑감리교회
문의 : 010.2529.6193 (이기영 단무장)

춘천성시무용단 단원 수시모집

일시 : 일주일에 두번 오전반, 저녁반
장소 : 부안길 6번길 18
문의 : 010.3180.5330 (지도 김귀선)

춘천쏠리데오 사모합창단 모집

대상 : 목회자 사모, 연령제한 없음
문의 : 010.6378.2261 (지휘자)

교회음악(지휘)스터디 모임

일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0-12시
장소 : 후평 2동 주민센터 뒤
(부안초교 근처)
시온 피아노 교습소

혈몬산악회(기독동아리)회원 모집

일시 : 매주 토요일 100대 명산 및
춘천분지 종주 산행
문의 : 010.8798.8732 (정학수)
http://cafe.daum.net/cgmm

교역자 축구 선교회 회원모집

포이맨

일시 :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장소 : 공지천 잔디구장
문의 : 010.5372.6200 (지용찬 목사)

목회자 족구 회원 모집

일시 : 월-토요일 매일 오전 6시
장소 : 공지천 족구장
문의 : 010.5596.3702 (충무 최제영 목사)

한마음 탁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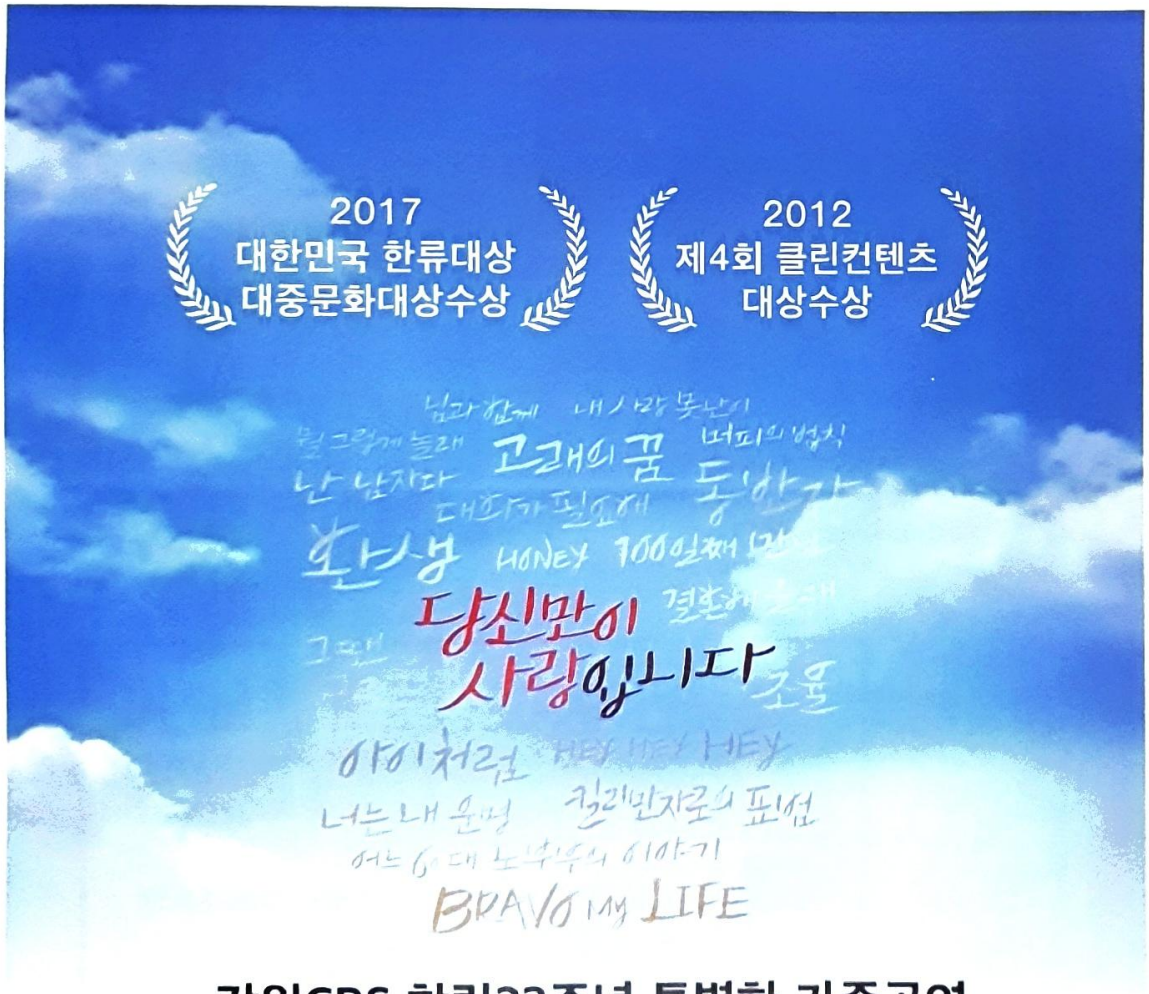
일시 : 매일아침 7시30분
장소 : 더즐거운탁구(후평동지시장집구)
회비 : 월 4만원
문의 : 010.4306.3818

합기도 선교회원 모집

대상 : 목회자 및 자녀와 성도
장소 : 합기도선도관(박물관 앞)
문의 : 010.3585.3620 (이영규 목사)

행복재가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목욕(춘천시역기관설치 제1호)
65세 이상 치매, 중풍, 장애 등 요양보호사
돌봄이 필요하신 분
문의 : 010.7757.4972



강원CBS 창립23주년 특별한 가족공연

MUSIC DRAMA

당신만이

백령아트센터(강원대학교) | 2018. 6. 2(토) 19:00

강원 CBS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가능합니다.
문의: 033-255-2001 (강원CBS 총무국)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춘천성시화운동을 위해 후원하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개인

가천흥 강민승 강민찬 강상모 강석봉 강옥자 강은주
경동현 고순덕 고정희 곽 환 국주영 권경애 권여림
권영일 권영자 권혁자 권현정 경동현 김경애 김교성
김금교 김금란 김관수 김경순 김경희 김기영 김도희
김두철 김매순 김영희 김문수 김미경 김미라 김미숙
김보경 김복심 김복자 김상욱 김성희 김성희 김성아
김생수 김세환 김수국 김숙희 김순덕 김순영 김순욱
김순월 김연숙 김영관 김영명 김영목 김영일 김영수
김영순 김영신 김영희 김영태 김예은 김옥기 김옥선
김옥자 김옹기 김원중 김용배 김은아 김은영 김은희
김인아 김일섭 김점자 김정미 김정숙 김정애 김정희
김주봉 김주혁 김중녀 김종숙 김종옥 김종익 김종은
김종찬 김중희 김지영 김지훈 김진숙 김진희 김추옥
김춘화 김춘희 김태균 김학자 김현주 김현철 김형옥
김혜란 김혜숙 김화분 김효순 나정희 남궁자 남상구
남준섭 남하은 노길자 노윤미 노정호 랑영철 류현구
문은천 문현숙 민경원 민병임 박김출 박경미 박광희
박금화 박노항 박덕남 박동환 박안규 박문순 박명관
박미선 박미자 박미정 박인수 박인순 박병화 박상혁
박선옥 박소영 박순덕 박순배 박애자 박완영 박영호
박옥화 박은경 박은혜 박인관 박정애 박종일 박지인
박지혜 박지환 박창범 박춘자 박필상 박혜성 박 현
박 희 박희상 방진선 배미정 배진철 배한나 백광일
서경숙 서묘석 서성자 서성진 서순옥 서연숙 서은아
서현애 석지찬 성숙자 성관경 성화숙 손병서 손인규
손임순 손학균 송갑수 송경화 송미화 송영인 송수정
송점심 송창근 신건호 신달호 신동경 신미연 신성균
신안섭 신옥섭 신옥자 신은수 신영선 신종길 심규향
심효선 안순연 안현주 안한나 양미선 양봉남 양재순
양혜경 어금옥 엄근혜 엄기홍 엄혜련 여경구 연송흠
연전화 염은희 염정옥 오순자 오재영 오재경 오준영
오흥금 오흥수 옥혜숙 용애중 용영옥 유 근 유근창
유동열 유병준 유상고 유성현 유윤군 유재란 유재형
유점선 유정선 유정희 유혜미 유희자 윤금숙 윤기순
윤영기 윤은옥 윤은미 윤흥옥 윤병열 윤예슬 윤유미
윤희정 윤성자 윤애자 윤정희 윤학병 윤선미 원화숙
이가현 이갑용 이경구 이기자 이기환 이광필 이규현
이대만 이문희 이명선 이명숙 이명순 이명화 이무식
이문희 이미경 이미영 이병일 이보람 이복순 이봉연
이상만 이상숙 이선임 이성숙 이성은 이숙희 이순옥
이순자 이소영 이승희 이연화 이영규 이영윤 이영애
이영준 이영진 이옥순 이완래 이용숙 이유진 이윤규
이윤숙 이윤주 이은경 이은정 이은옥 이인숙 이정미
이종완 이종천 이재곤 이재선 이주영 이지영 이지은
이진주 이창주 이충훈 이태우 이하경 이현석 이혜란
이혜옥 이호민 이희화 임경혜 임덕수 임미화 임소희
임쌍용 임영광 임우선 임문식 임문희 임인숙 임재철
임정숙 임청용 장기열 장동자 장선영 장소영 장지원
장진순 장창순 전일자 전윤배 전정미 전정희 정국환
정계지 정규시 정명옥 정미선 정복례 정복희 정선문
정성옥 정우진 정유빈 정은순 정은주 정은하 정인숙
정인순 정재인 정종승 정주항 정지혜 정진호 정치용
정창현 정현우 조경대 조경자 조기숙 조남진 조돈산
조명숙 조상균 조성경 조소현 조양숙 조영순 조원순
조정십 조진경 조현옥 주영호 주신자 지윤성 지정훈
차경자 차재옥 채재관 친향호 최광우 최귀숙 최귀순
최돈식 최동규 최명기 최문수 최미혜 최민희 최선이
최성현 최순희 최승경 최승대 최승화 최연화 최영달
최영순 최영희 최옥순 최윤영 최인숙 최재중 최정자
최종내 최종인 최종호 최홍준 최효숙 탁광희 하윤옥
한건영 한명수 한순옥 한원순 한정순 한정연 한진희
한희선 함종현 허순영 허 엽 허인영 허정자 현순덕
현연희 현재용 홍성애 홍순복 홍영숙 홍의표 홍은숙
홍인숙 홍춘애 황덕기 황혜림 황기현 황금심 황병찬
황병호 황영희 황은주 황정숙

후원교회

강원침례교회 광염감리교회 거성침례교회 그말씀교회
나눔성결교회 동신장로교회 사랑의교회 사암성결교회
산솔교회 새춘천교회 석사감리교회 소양제일교회
순복음열린교회 순복음제일교회 순복음춘천교회
신북교회 신성감리교회 엠마오교회 예사랑교회
예수촌교회 옥산포침례교회 온누리교회 우두감리교회
주와솔교회 주산양교회 주향장로교회 축복교회
춘천광명교회 춘천그리스도의교회 춘천동부교회
춘천명성교회 춘천예닮교회 춘천우리교회
춘천은혜교회 춘천임신교회 춘천제일감리교회
춘천제일장로교회 춘천침례교회 한빛교회
한울섬김교회 화목교회 후평제일교회

후원기관 및 사업체

JDM 건강한사회를위한시민연대 로뎀어스 메일관광
베드로선교문화센터 설곡산기도원 아가갤러리
영광한의원 월드비전 장기방문요양센터
춘천와이신협 행복재가요양기관

※ 명단에 누락이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 033-256-1260